

打毬란 용어에 대한 고찰

박 세 옥*

<目次>

I. 타구의 來源	IV. 타구와 격구
II. 타구의 방법	V. 맺음말 :
III. 타구와 축구	타구와 기타 놀이와의 관계

I. 타구의 來源

기록상 唐代에 시작된 打毬라는 놀이는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놀이로 동아시아 삼국에서 고루 유행했다. 오늘날의 폴로의 추형으로 볼 수 있는 이 놀이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영국인들이 1859년 히말라야 Silchar에서 최초의 팀을 창설하면서부터이다. 일반적으로 폴로라는 단어의 어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티베트어 ‘spo-lo’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그 놀이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기원전 1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행해졌다고 한다.¹⁾ 여기에서 말하는 페르시아란 메디아, 아케메네스, 파르티아시기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앞서 기원전 2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설도 있다. 시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지만 처음으로 행해진 지역은 분명 고대 페르시아(이란)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놀이를 오늘날

* 경북대학교 강사

1) 브리태니커, 위키페디아 백과사전 ‘polo’조목 참고.

중국인들은 ‘波羅’ 또는 ‘馬球’라고 음역하거나 의역하여 쓰고 있다.

폴로가 어떻게 중국에 유입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어떻게 전파되었고 유행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삼국에서 이러한 놀이에 대하여 歷代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폴로와 관련된 유사 놀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설명 없이 혼동된 서술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본고는 중국을 중심으로 폴로가 어떻게 중국으로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의 고문헌에서 보이는 유사 공놀이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이전 설명의 혼동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한다.

중국 측에서 연구된 폴로의 중국유입설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바로 페르시아 기원설과 티베트 유래설이 있는데, 전자를 주장하는 向達은 <長安打毬小考>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폴로(Polo: 波羅毬)는 말위에서 공을 치는 놀이의 일종이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뒤로 서쪽으로 콘스탄티노폴로 전해졌고, 동쪽으로는 투르크스탄에 전해졌다. 투르크스탄에서 중국, 티베트로 전입되었다. 일본과 한국에도 이러한 놀이가 있는데 역시 중국에서부터 가져간 것이다.²⁾

한편 티베트 유래설을 주장하는 陰法魯는 <唐代西藏馬球戲傳入長安>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波羅³⁾라는 명사는 티베트어에서 실로 만든 공인 ‘波郎(polon)’에서 변화된 것이다. 清代에 어떤 사람은 이 ‘波郎’을 ‘搶行頭’ 혹은 ‘行頭’라고 한 것을 보면 실로 엮어서 만든 공을 사용하여 탄성이 풍부하였던 것이다. 유럽

2)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三聯書店, 1987), 80쪽. 이밖에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郝更生的 《中國體育概說》, 吳文忠의 《體育史》(대만, 정중서국, 1962) 등을 들 수 있다.

3) 陰法魯는 ‘波羅’라는 단어를 영어 polo의 어원인 티베트어 pulu의 譯語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譯語는 고대 문헌 어디에서도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의 여러 언어에서 馬球은 대부분 波羅란 이 명사를 차용하고 있다.⁴⁾ 영국의 백과사전에서는 영어의 polo가 티베트어 pulu에서 나왔다고 인정하면서 티베트의 마구는 페르시아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듯하지 않다. 아랍어 중에 波羅라는 명사는 영어의 polo를 차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도 영어의 polo에서 빌려 썼다고 하였다. …… 어떤 학자들은 최초의 폴로는 티베트에서 발원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⁵⁾

이상의 두 설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타구, 즉 폴로는 외래의 것이며 둘째 그 기원은 다를지라도 중국으로 유입된 것은 티베트를 통하여 들어왔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서구의 백과사전에서 폴로의 어원이 티베트어에서 비롯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서역의 놀이가 주로 고대의 실크로드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唐 이전의 고문헌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이고, 《唐書》를 통하여 볼 때에도 吐蕃(티베트)세력의 중원진출과 관련하여 그 언급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산조페르시아와 관련된 기술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唐代 封演, 《封氏聞見記》 권6에서는 티베트인들의 타구놀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태종은 安福門에 어거하여 侍臣들에게 말하기를, “토번인들은 打毬하기를 좋아하여 근래 그것을 배우도록 하여 일찍이 한번 본 적이 있었다. 어

-
- 4) 波羅라는 음역자를 고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舊唐書·吐蕃傳》에는 “금양과 금파라 등을 바치면서 다시 청혼하였다.(獻金盅, 金頗羅等, 復請婚.”라고 하는데(丁玲輝와 平措達吉, <吐蕃時期的馬球運動與馬球轉入>, 《中國西藏》, 2003/3), 여기에서 ‘頗羅’가 波羅, 즉 폴로의 음역자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파라’는 그릇의 일종이다. 자세한 것은 줄고, “Les Fu dans les manuscrits de Dunhuang(돈황부연구)”를 참고.
- 5) 陰法魯, <唐代西藏馬球戲傳入長安>, 《歷史研究》, 1959/06, 41-42쪽. 이밖에도 徐壽彰·王堯의 <唐代馬球考略>(《中央民族學院學報》, 1982/02)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제 昇仙樓에 胡인들이 거리에서 타구를 한다고 하여 짐이 보고 싶었다. 호인들은 내가 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같이 하자고 했다. 이에 ‘제왕이 거동을 어찌 쉽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여 짐은 이 공을 태워버리고 스스로 경계하였다.”고 하였다.(太宗常御安福門, 謂侍臣曰: 聞西蕃人好爲打毬, 比亦令習, 曾一度觀之. 昨昇仙樓有羣胡街裏打毬, 欲令朕見此胡疑朕愛此, 騁爲之. 以此思量, 帝王舉動, 豈宜容易, 朕已焚此毬以自誠.)⁶⁾

또한 봉연은 景龍연간에 토번이 사신을 보내어 금성공주를 맞이하는 연회에서 中宗이 梨園의 정자에서 타구를 관람하게 되는데 토번인 尙贊咄이 타구시합을 제안하자, 임금이 의장대로 하여금 안에서 시험 삼아 수차례 겨루어 보았으나 토번이 모두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舊唐書》 권196 상에는 “경룡 3년 11월 또 [토번의] 대신 상찬토 등이 公主를 맞으러 오니, 중종은 苑內의 毬場에서 연회를 열고 부마 都尉 楊慎交와 토번 사신이 타구를 하게하고 중종은 신하를 거느리고 그것을 관람하였다.”⁷⁾라고 한 것을 보아 봉연의 이야기는 믿을 만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분명히 타구가 티베트에서 유입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록과 관련된 사실 이외에는 그 이전 문헌(唐代 이전)의 어디에서도,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놀이로서 타구라는 명칭이나 그와 관련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폴로 즉 타구가 티베트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혀주는 근거들이다.

한편 고대 페르시아와 투르크스탄의 말들은 소위 天馬(일명 汗血馬)라고 하여 다리가 길고 잘 달리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구하기 위하여 한나라 무제는 사신을 페르가나지역까지 파견했었다. 반면에 티베트의 말들은 산악지역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나귀와 같이 다리가 짧은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오늘날 보는 폴로용 말인 포니의 모습은 바로 중앙아시아 천마와

6) 封演, 《封氏聞見記》 권 6, 《文淵閣四庫全書》 864책, 443~444쪽.

7) 《舊唐書》(중화서국, 1995, 16책, 5226쪽) 권 196 상: 景龍三年十一月, 又遣其大臣尙贊咄等來迎女, 中宗宴之於苑內毬場, 命駙馬都尉楊慎交與吐蕃使打毬, 中宗率侍臣觀之.

티베트의 나귀의 중간 형태에 가깝다. 이는 동서 문화의 접점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다. 폴로가 원래 고대 페르시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알렉산더의 東征을 통하여 유럽의 문화가 중앙아시아에 이식되기 시작하였고, 흉노의 이동과 분산,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앙아시아 오아시스들의 독립적 부흥, 唐代에는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고대 폴로 놀이가 티베트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아랍과 중앙아시아의 혼합된 문화가 東漸하는 결과로서 폴로는 티베트에서 지리적 신체적 조건에 맞게 정착되었고 발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II. 타구의 방법

唐代로부터 중국에서 행해진 打毬(Polo)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清代에 들어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⁸⁾ 그래서인지 중국에서 打毬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문건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이러한 馬上打毬 즉 폴로는 한국과 일본에도 유입되어 상당히 유행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거꾸로 추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국 측에서의 유래와 수용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의 자료는 그 규칙이 대체로 《宋史·禮志》·《金史·禮志》 등의 책에서 대략을 볼 수 있다. 먼저 《宋史·禮志》 권121을 보면, 타구는 본디 軍中의 놀이로서 태종때 有司에게 그 의례를 상세히 정하도록 하였으며 3월 大明殿에서 會鞠을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 경기 상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有司가 경기장을 청소하고 나면 동쪽과 서쪽에 수丈에 달하는 毬門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는 황금의 용 장식을 해두었으며 그 아래에는 연화문

8) 清代에 타구와 같은 공놀이가 소멸해버린 이유에 대하여 袁學軍은 <論金代和清朝馬球文化的反差>에서 “重文輕武”의 경향이라고 설명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공놀이가 전통적으로 군사적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의 石座를 놓고 두 팀이 주관한다. 이어서 毬門을 지키는 두 명의 承旨, 붉은 깃발을 들고 시각을 알리는 두 명의 衛士, 경기장을 지키는 호위병, 양쪽 회랑에 배치된 음악대[龜茲部], 팀을 나누고 상황을 결정하는 閤門使 등의 간접 경기 보조자들의 명칭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親王·近臣·節度·觀察·防禦·團練使·刺史·駙馬都尉·諸司使副使·供奉官·殿直들이고 이들의 복장은 종친과 관원들은 서로 다른 색의 옷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좌우의 팀이 황색과 홍색으로 구분하여 입었으며 각 팀에서 실제 경기 보조자인 供奉官(심판의 역할)은 상대팀의 옷 색에 맞추어 입었다. 모두들 검은 가죽신과 折上巾을 쓰며, 말은 특별히 天廄院에서 숙련된 말과 안장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면 황제의 행차의례가 치러지고 내시가 金盃를 치면 붉게 칠한 공이 던져진다. 황제는 말을 타고 이 공을 치고 가서 毬門에 넣는 始球를 한 뒤 그에 따른 축하의식이 치러진다. 이러한 의식이 치러진 후 비로소 각 팀은 황제와 더불어 경기를 한다.

두 팀이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다투어 공이 毬門에 들어가려하면 행랑에서는 북을 두드리고 들어간 뒤에는 세 번의 북을 치고 그친다. 그리고 毬門옆에는 24개의 깃발을 꽂아 두었다가 공이 毬門에 들어가, 한 팀이 산가지[籌]를 얻으면 동서의 계단아래 설치해 두었던 시령에 깃발을 꽂아 표시하였다. 황제가 산가지를 얻으면 만세를 외치고 신하들이 산가지를 얻으면 환호하며 산가지를 얻은 사람은 말에서 내려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산가지가 셋이 되면 경기를 그치고 신하들과 술을 마셨다. 이러한 방식과는 달리 말을 타지 않고 달려 다니며 공을 치는 것도 있고, 나귀나 노새를 타고 치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러한 유사한 놀이 역시 왕명으로 종종 행해졌다.⁹⁾

9) 《宋史·禮志》(중화서국, 1995, 9책, 2841~2842) 권 121: 打毬本軍中戲. 太宗令有司詳定其儀. 三月會鞠大明殿. 有司除地, 豎木東西爲毬門, 高丈餘, 首刻金龍, 下施石蓮華坐, 加以采績. 左右分朋主之, 以承占二人守門, 衛士二人持小紅旗唱籌, 御龍官錦繡衣, 持哥舒棒, 周衛毬場. 殿階下東西建日月旗. 教坊設龜茲部鼓

한편 《金史·禮志》 권 35에 따르면 5월 5일 拜天의 의식을 球場에서 치른다고 하는데, 그 의식이 끝나면 구장에 두 줄의 버드나무 가지를 꽃아 놓고 말을 몰고 가서 활로 쏘아 맞히는 놀이를 하고난 다음에 擊毬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격구를 하는데, 각자 익숙한 말을 타고, 치는 막대기를 잡는다. 그 막대기는 수尺에 달하고 그 꼬트머리는 반달 같다. 사람들을 나누어 두 팀으로 만들고 다 함께 하나의 공을 친다. 이에 앞서 毬場 남쪽에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워두고 나무판자를 놓아 아래로 구멍을 뚫어 문을 만든 다음 網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단다. 공을 뺏어 그물주머니에 쳐 넣으면 이긴다. 혹은 두 팀이 두 문에서 마주보고 서서 서로 밀치고 쳐서 문으로 내보내면 이긴다고 한다. 공의 모양은 주먹만큼 작고, 가볍고 질긴 나무에다 속을 파내어 붉게 칠한다. 모두 동작을 민첩하게 연습하기 위함이다.(已而擊毬 各乘所常習馬, 持鞠杖, 杖長數尺, 其端如偃月. 分其衆爲兩隊, 共爭擊一毬. 先於毬場南立雙桓, 置板, 下開一孔爲門, 而加網爲囊. 能奪得鞠, 擊入網囊者爲勝. 或曰兩端對立二門, 互相排擊, 各以出門爲勝. 毬狀小如拳, 以輕韌木朽其中而朱之. 皆所以習蹶捷也.)¹⁰⁾

이상 두 문건을 통하여 타구는 두 팀이 말을 타고 끝이 반달 같은 막대

樂於兩廊, 鼓各五. 又於東西毬門旗下, 各設鼓五. 閣門豫定分朋狀取裁. 親王·近臣·節度·觀察·防禦·團練使·刺史·駙馬都尉·諸司使副使·供奉官·殿直悉預. 其兩朋官, 宗室節度以下服異色繡衣, 左朋黃襪, 右朋紫襪. 打毬供奉官左朋服紫繡, 右朋服緋繡. 烏皮韉, 冠以華插脚折上巾. 天廡院供馴習馬并鞍勒, 帝乘馬出, 教坊大合涼州曲. 諸司使以下前導, 從臣奉迎. 既御殿, 羣臣謝, 宣召以次上馬, 馬皆結尾, 分朋自兩廂入, 序立於西廂. 帝乘馬當庭西南駐, 內侍發金合, 出朱漆毬擲殿前. 通事舍人奏云御朋打東門, 帝擊毬, 教坊作樂奏鼓. 毬既度, 廳旗鳴鉦止鼓. 帝回馬, 從臣奉觴上壽貢物以賀. 賜酒卽列拜, 飲畢上馬. 帝再擊之, 始命諸王大臣馳馬爭擊. 旗下搥鼓, 將及門. 逐廂急鼓, 毬度, 殺鼓三通. 毬門兩旁置繡旗二十四, 而設虛架於殿東西階下. 每朋得籌, 卽插一旗架上以識之. 帝得籌, 樂少止, 從官呼萬歲. 羣臣得籌, 則唱好, 得籌者下馬稱謝. 凡三籌畢, 乃御殿召從臣飲. 又有步擊者, 乘驢騾擊者, 時令供奉者朋戲以爲樂云. 한편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東京夢華錄》 권9, <宰執親王宗室百官入內上壽>란 조목에도 보인다.

10) 《金史·禮志》 권35, 중화서국, 1995, 3책, 826쪽.

기로 공을 치는 놀이임을 알 수 있으며 득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문건은 모두 하나의 망으로 막아 놓은 골대를 가지며 공이 골대를 통과하면 籌를 얻으며 점수판인 시령에 깃발을 꽂아 점수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문건에서는 하나의 골문으로 진행되는 방식 이외에도 두 개의 골문을 가지는 방식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문장과 심판 등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은 민첩성을 연마하기 위하여 나무의 속을 파내고 채색한 공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팀은 식별하기 쉽도록 서로 다른 색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방식들을 敦煌本 <杖前飛>란¹¹⁾ 노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打毬의 방식은 고려와 조선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것보다 공, 杖匙, 毬門, 毬場의 측면에서 더욱 규정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¹²⁾ 한편 《金史·禮志》에서는 打毬를 擊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바로 打毬의 경기방식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본고의 다음 장을 예고해 준다.

III. 타구와 축구

중국의 전통 공놀이는 대체로 蹴鞠과 打毬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 고문헌 속에서 ‘鞠’이 ‘毬’보다는 먼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鞠’이란 가죽에 털을 넣어 만든 것으로 그것을 치는 蹴鞠은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군사용 운동이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蹴’자는 다양한 異體字로 기록된 반면 ‘打’자는 유일하게 ‘擊’자로만 표기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蹴鞠이란 놀이가 打毬보다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글자의

11) S.2049와 P.2544에 보임.

12) 우리나라 擊毬의 방식에 대하여, 정형호, “한국 격구의 역사적 전승과 변모양상”을 참고.

구분된 사용은 두 놀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일 것이다.

공	공과 조합되는 발로 찬다는 의미의 글자들						
鞠·踰·掬	蹴	蹙	筑	踏	蹋·躡	蹶	踢
毬·毳·球	擊 ¹³⁾	打					

불행히도 蹴鞠이란 놀이를 정확하게 그 방식을 고증해 낼 수는 없다. 다만 남아있는 약간의 자료를 통하여 그 놀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藝文類聚》 권54, 後漢의 李尤 <鞠城銘>은 축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圓鞠方牆,	둥근 鞠과 사각 담장
仿象陰陽.	흡사 음양과 같네.
法月衡對,	반월의 저울이 대치하고,
二六相當.	두 팀 각 12명이 서로 마주하네.
建長立平,	주장과 심판을 세우고,
其例有常.	그 법식에는 고정된 규칙이 있네.
不以親疏,	가깝거나 멀리 하지 않고,
不有阿私.	치우침이 없네.
端心平意,	마음은 바르고 뜻은 평온하니,
莫怨其非.	그 잘못을 원망하지 않네.
鞠政猶然,	공놀이도 이러하거늘,
況乎執機.	하물며 執政함에 있어서야! ¹⁴⁾

이 銘에서 우리는 직사각형의 담장이 있는 축국장이 별도로 있었고, 각 팀은 1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진영에는 각각 6개의 아치형 鞠門이 있었

13) 공을 찬다는 의미로의 두 글자 중에 ‘擊’자만이 두 종류의 공과 조합해서 쓰이는 반면 ‘打’는 오로지 ‘毬’자와만 결합된다.

14) 《藝文類聚》(상해고적출판사, 1999.), 970쪽.

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의 팀장과 심판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분명 오늘날 축구의 원시적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축구연맹이 2004년 축구가 중국에서 가장 빨리 행해졌음을 공인하였던 것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唐代초기에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놀이인 폴로를 ‘打毬’, ‘擊鞠’ 혹은 ‘擊毬’라고 불렀는데 혼란스럽게도 唐代 이후의 기록을 보면 ‘打毬’는 ‘蹴鞠’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唐代이전의 어떠한 문헌에서도 ‘打毬’라고 표현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써 唐代초기에 ‘打毬’라는 명칭이 새로이 나타나고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徐堅의 《初學記》 권4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타구는 劉向의 《別錄》에 이르기를 “축국은 黃帝가 만든 것으로 본시 병법이다. 혹 전국시대에 생겼다고도 한다.” 생각건대 鞠과 毬는 같으며, 옛 사람들은 공치는 것을 놀이로 삼았다.(打毬, 劉向別錄曰, 蹴鞠黃帝所造本兵勢也. 或云起於戰國. 案鞠與毬同, 古人蹋蹴以爲戲.)¹⁵⁾

여기에서 서견은 분명 打毬를 공을 ‘蹋蹴’하는 놀이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설명은 결국 打毬를 공을 발로 치는 놀이인 축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唐代 開元연간에 起居郎을 지냈다고 알려진 시인 蔡孚는 <打毬篇>이란 시를 지으면서 서문을 붙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타구란 것은 옛날의 蹴鞠으로, 옛 놀이이다. 黃帝가 兵勢로 만든 것으로 이로써 무사들을 훈련시켜 그가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찬미하여 삼가 7언의 <타구편> 1章을 지어 올립니다.(臣謹按打毬者, 往之蹴鞠, 古戲也. 黃帝所作兵勢, 以練武士知有材也. 竊美其事, 謹奏打毬篇一章凡七言.)¹⁶⁾

15) 《初學記》(중화서국, 1962), 67쪽.

16) 《全唐詩》(상해고적출판사, 1986), 권75, 189a.

서건의 설명은 말을 타고 행하는 타구, 즉 馬球인지 아닌지 언급이 없지만, 채부의 시에는 “본디 재능이 있었으나 반드시 쾌승하려면, 말을 빠르게 잘 몰아 먼저 산가지를 채워야하네.(自有長鳴須決勝, 能馳迅走滿先籌.)”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는 분명 唐代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打毬(polo)를 고대의 蹴鞠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唐 閻寬은 <溫湯御毬賦>를 지어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珠毬忽擲,	붉은 毬가 갑자기 던져지니,
月杖爭擊.	달 모양 지팡이로 다투어 치네.
并驅分鏢,	함께 말을 모아 길을 달리하고,
交臂疊跡.	어깨를 교차하고 足跡은 쌓이네.
或目留而形往,	혹 바라보고 있다가 모습이 사라지고,
或出羣而受敵.	혹 출중해도 상대에게 당하네. ¹⁷⁾

염관의 부는 분명 말을 타고 “끝이 반달처럼 생긴 막대기”로 위의 《金史·禮志》 권 35에서 언급된 “붉게 채색한 공”을 치는 打毬의 경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賦의 서문에 玄宗은 天寶 6년(748)에 詔書를 내려 “축국이란 놀이는 대저 用兵하는 기술이다. 무예는 이로부터 존재하니 그 뜻은 버릴 수 없다. 근래 대궐에서 병사들이 익혀 오늘날 천하에 그러나게 되었다.(伊蹴鞠之戲者, 蓋用兵之技也. 武由是存, 義不可舍. 頃徒習於禁中, 今將示於天下.)”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打毬를 蹴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封演이 지은 《封氏聞見記》 권 6을 보면 이보다 더 체계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타구란 고대의 蹴鞠이다. 《漢書·藝文志》에 “《蹴鞠》 25편”이라 하였는데, 顏師古의 注에 “鞠은 가죽으로 만들어 무언가로 안을 채워 발로 치는 놀이이다. 蹴鞠은 힘을 전개하는 일이므로 병법에 넣은 것이다. 蹴의 음은 子六으로 읽고, 鞠의 음은 鉅六으로 읽는다.”고 하였다. 요사이 소리

17) 《歷代賦彙·臨幸》(강소고적출판사, 1987), 권57. 241쪽.

가 와전되어 鞠을 毬라고 하였고 글자 또한 따라서 변화되었는데, 옛 것이 아니다. (打毬, 古之蹙鞠也. 漢書藝文志: 蹙鞠二十五篇. 顏注云: 鞠以韋爲之, 實以物, 蹙蹋爲戲. 蹙鞠, 陳力之事, 故附於兵法. 蹙音子六反,¹⁸⁾ 鞠音鉅六反. 近俗聲訛, 謂鞠爲毬, 字亦從而變焉, 非古也.)¹⁹⁾

이러한 설명대로 打毬가 고대의 蹙鞠이라면 풀로는 중국이 발원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몇몇 책속에서 인용된 《西京雜記》에는 ‘蹙鞠’이란 용어가 보이기 때문이다. ‘毬’자와 ‘鞠’의 구분은 차치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打’자와 ‘蹙’의 구분은 아주 명백하다. 즉 손으로 치는 것과 발로 차는 것임을 이미 字形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沈括은 《夢溪筆談》 권18, <技藝>편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西京雜記》에 “한원제는 공을 차는 유희인 蹙鞠을 좋아하였지만, 공을 차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공을 치는 것과 유사하지만, 힘들지 않는 유희를 만들었는데 바로 탄기라는 유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탄기라는 놀이는 공을 차는 놀이와는 전혀 다르며 擊鞠과 매우 유사하다. 아마도 기록할 때 착오가 있는 듯하다. 唐代의 설승은 축국을 좋아하였는데 유강은 그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세상에 즐거운 놀이들이 많은 데 하필이면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그런 위험한 놀이를 즐기시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축국도 역시 격국을 말하며, 《唐書》가 ‘蹙鞠’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西京雜記云: 漢元帝好蹙鞠, 以蹙鞠爲勞, 求相類而不勞者, 遂爲彈棋之戲. 余觀彈棋絕不類蹙鞠, 頗與擊鞠相近, 疑是傳寫誤耳. 唐薛嵩好蹙鞠, 劉綱勸止之曰, 爲樂甚衆, 何必乘危邀頃刻之歡? 此亦擊鞠, 唐書誤述爲蹙鞠.)²⁰⁾

이와 같이 沈括은 ‘蹙’자와 ‘擊’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18) 子六反: 이러한 설명은 《唐語林》 권5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周勛初의 校證에 따르면, ‘子’는 ‘千’자의 잘못이라고 함. 周勳初, 《唐語林校證》, 중화서국, 1987, 474쪽 참고.

19) 封演, 상계서, 같은 곳.

20) 沈括, 《夢溪筆談》 권18, <技藝>, 《文淵閣四庫全書》 862책, 806하.

《西京雜記》에서 인용된 蹴鞠은 ‘격국’을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沈括은 “《唐書》가 ‘蹴鞠’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唐書》라 함은 《舊唐書》에는 이러한 기술이 보이지 않으므로 宋代 歐陽修등이 편찬한 《新唐書》[권111, 薛仁貴列傳]를 말한다. 이로써 심괄의 판단은 상당한 고증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격국은 말을 타고 공을 치는 타구(polo)를 말하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왜냐하면 말을 타지 않고 공을 치는 蹴鞠이라면 그다지 위험한 운동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구, 즉 격국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穆宗과 敬宗은 타구놀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敬宗은 이를 너무 좋아하여 늘 一更, 二更에까지 이르니 놀이하자는 종종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였으며, 陶元皓, 靳遂良, 趙士則, 李公定, 石定寬등의 무리는 타구를 잘하여 총애를 받았으나 그 후 그들은 18세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²¹⁾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심괄이 말하는 격국은 말을 타고 하는 놀이인 打毬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清代 吳景旭도 《歷代詩話》 권25 <古樂府>에서 《西京雜記》의 ‘蹴鞠’은 ‘擊鞠’으로 되어야 한다고 注하였던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宋代의 黃朝英은 《靖康細素雜記》 권9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蹙鞠을 擊鞠이라 생각하는데, 대저 ‘蹙’과 ‘擊’은 같은 것이다.(今人又以蹙鞠爲擊鞠, 蓋蹙擊一也.)”²²⁾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혼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심지어 풀로는 중국의 중국 전통 병법인 蹴鞠에 원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원은 중국에 있다는 중화중심적 주장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²³⁾

축국이라는 발로 치는 놀이는 이미 ‘蹋鞠’, ‘蹴球’, ‘蹴圓’, ‘筑球’, ‘踢

21) 《舊唐書》의 <穆宗本紀>, <僖宗本紀>; 《자치통감》 권. 242~243.

22) 黃朝英, 《靖康細素雜記》 권9, 《文淵閣四庫全書》 850책, 422하~423상.

23) 대표적인 예로 李季芳, <中國馬球起源新議>, 《體育文史》(1994/05, 62~64쪽)을 들 수 있다.

圓²⁴⁾등으로 표기되면서 이미 《史記》와 《戰國策》에 보이며, 기원전 4 세기에 齊나라 수도인 臨淄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漢代에는 治國習武의 일환으로 장려되면서 왕실사회에서 크게 유행하였음을 위의 《西京雜記》의 인용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는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극히 드물게 보이는 데, 이는 이러한 놀이를 향유하던 왕실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고, 劉向이 《別錄》에서 말한 《蹴鞠二十五篇》이란 책도 소실되어 《隋書·經籍志》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唐代에 이르면서 이러한 蹴鞠놀이는 새롭게 탄생하며 번성하였다. 宋代 陳暘의 《樂書》 권 186, <蹙鞠戲> 조목에 다음과 같은 기술을 찾을 수 있다.

蹴국은 대저 唐에서 시작되었다. 두 개의 곧은 대나무를 높이가 수 丈이 되도록 세우고, 위의 그물망을 門으로 삼아 공을 넣는데, 공을 차는 사람들은 좌우로 벗을 나누어 승부의 여부를 다투니, 어찌蹴국이 변한 것이 아니겠는가?(蹙毬 蓋始於唐. 植兩脩竹, 高數丈, 絡網於上, 爲門以度毬, 毬工分左右朋, 以角勝負, 豈亦蹙鞠之變歟?)

이로써 古代의 蹴鞠이 唐代에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쌍방에 있던 골대가 이제는 하나로 된 골대를 사용하며, 또한 공 역시 나무, 가죽뭉치, 털뭉치에서 바람을 넣은 가죽공으로 바뀌었고,²⁵⁾ 또한 군사훈련용에서 순수한 오락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漢代이후에 단절되었던蹴국이 唐代에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蹴국이 唐代에 비롯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唐代의蹴국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황실을 중심

24) 이러한 명칭들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만 그 공이 나무로 된 것, 가죽을 뭉친 것, 아니면 털을 뭉친 것인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25) 徐堅, 《初學記》에 “鞠은 바로 毬자로, 오늘날의蹴국은 戲毬라고 한다. 옛날에는 털을 뭉쳐 만들었으나, 지금을 가죽이 사용하여 胞로 짠 뒤에 바람을 넣어 찼다.(鞠卽毬字, 今蹴鞠曰戲毬. 古用毛糾結爲之, 今用皮, 以胞爲裏, 噓氣閉而蹴之.)”는 기록을 참고. 《康熙字典》주에 인용됨.

으로 고급관료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게다가 이러한 축국과 같은 방식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寒食에 행해지거나 관람되었던 축국은[寒食蹴鞠] 상당히 광범위하게 민간에서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舊唐書》 권 17하, 文宗本紀下에 “開成 4년· 2월· 병인, 한식절에 임금께서는 통화문에 남시어 노는 사람을 보았다. 무신일에는 근정루에 남시어 각저(일종의 씨름)와 축국을 관람하셨다.(四年· 二月· 丙寅, 寒食節, 上御通化門以觀遊人. 戊辰幸勤政樓觀角抵蹴鞠.)”²⁶⁾라는 역사적 기록을 비롯하여 唐代의 수많은 詩文에서 寒食節 蹴鞠에 관한 언급을 접할 수 있다.²⁷⁾

이와 같이 축국은 한식절에 민간에서도 유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寒食의 蹴鞠놀이는 唐代의 또 다른 놀이인 打毬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어 쓰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바로 梁나라 宗懷의 《荊楚歲時記》에 “입춘 일에· 打毬와 鞦韆의 놀이를 행했다.(立春之日· 又爲打毬鞦韆之戲)”²⁸⁾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구는 고대 중국의 축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한 공을 발로 치는 축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발로 치는 蹴鞠과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打毬는 唐代에 둘 다 행해지고 있었고 혼용되었으므로 打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혼용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논해야 한다.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축국은 좀 더 민간에 보편화되었고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타구는 《宋史·禮志》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귀족적인 모습을 띄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古今の 중국학자들은 唐代에 서역에서 들어와 황실을 중심으로 유행한 폴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원전 4세기부터 전해져오

26) 《舊唐書》 권17, 중화서국, 1995, 2책, 577쪽.

27) 예를 들어 王維, <寒食城東卽事>; 白居易, <洛陽寒食>; 韋應物, <寒食>; 薛能, <寒食有懷>; 溫庭筠, <寒食日作>; 段成式, 《酉陽雜俎續集》; 孫棨, 《北里志·張住住》 등등을 찾아 볼 수 있다.

28) 宗懷, 《荊楚歲時記》, 《文淵閣四庫全書》 589책, 17하.

는 중국의 전통 무예연마를 위한 공놀이 즉 蹴鞠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놀이가 어떠한 발전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건강부회일 것이다.

IV. 타구와 격국

《漢語大辭典》의 설명에 따르면 격국이란 ‘擊鞠’ 또는 ‘擊鞠’으로도 쓰며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고대의 운동이라고 한다. 또한 타구에 대해서는 중국 고대 군대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목적으로 말을 타고 공을 치는 유희로서, 말을 타지 않고 공을 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두 놀이가 같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打毬를 擊毬라고 한 것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아 바꾸어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打毬를 擊鞠이라 부른 것에는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陶宗儀의 《說郛》 113권 하에 실려 있는 <李林甫外傳>에 따르면, “당나라 우승상 이림보는 나이 20세에 독서는 하지 않고 東都에서 遊獵과 打毬를 좋아하여 매와 개를 몰며 달렸다. 매번 성 아래 槐壇 밑에서 나귀를 타고 공을 쳤는데, 거의 쉬는 날이 없었다.(唐右丞相李公林甫年二十, 尙未讀書, 在東都好遊獵打毬馳逐鷹狗. 每於城下槐壇下騎驢擊鞠, 略無休日.)”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打毬와 擊鞠이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후자는 분명 나귀를 타고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폴로의 변형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나 전자의 경우는 분명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아니면 말을 타고 하는 것은 打毬이고 나귀를 타고 하는 것은 擊鞠이라 한 것인가? 결국 둘 다 폴로와 유사한 공놀이였다는 것인데 명칭만 다르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擊鞠 역시 폴로를 지칭하는 명사였다고 한다면 그 연원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宋代 葉庭珪의 《海錄碎事》 권 14에서는 曹植의 <名都篇>에 나오는 “連翩擊鞠壤”을 인용하여 擊鞠을 오늘날의(宋代) 打

毬라고 주하였다.²⁹⁾ 그렇다면 폴로를 지칭하는 打毬는 바로 曹植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조식의 <명도편>에서 관련된 언급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鬪鷄東郊道, 동쪽 교외 길에서 닭싸움하고
走馬長楸間. 긴 개오동나무 사이로 말을 달린다.
.....
連翩擊鞠壤, 擊鞠과 擊壤 놀이가 잇달아 펼쳐지니
巧捷惟萬端. 교묘하고 민첩한 재주 많기도 많다.

조식의 이 작품은 여러 선집에서 전하고 있고, 여러 판본을 조사하여 보아도 “擊鞠”이란 용어에는 異本이 없다. 게다가 《六臣註文選》에 실린 주석들을 보면 견해가 서로 다르다. 먼저 李善은 《漢書·霍去病傳》에서 나오는 蹶鞠으로 보고 있는 반면, 呂向은 擊鞠은 唐代的 打毬로 주하였다.³⁰⁾ 여향의 주는 바로 위에서 본 《初學記》와 《封氏聞見記》 등에서 본 것과 같은 맥락의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데, 위의 <명도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격국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예증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舊唐書·姜皎列傳》 권59에 “현종이 즉위하고 [강교를] 불러 전중소감에 제수하였다. 번번히 침실내로 불러 편하게 하도록 하였고, 사적 연회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후비들과 나란히 榻床에 앉게 하고 간간히 격구와 투계를 하였지만, 언제나 강칠이라 부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玄宗即位, 召拜殿中少監. 數召入臥內, 命之捨敬, 坐侍宴私, 與后妃連榻, 間以擊毬鬥雞, 常呼之爲姜七而不名也.)”³¹⁾고 하였고, 또한 《舊唐書·讓皇帝憲》

29) 葉庭珪, 《海錄碎事》 권14: 連翩, 連翩擊鞠壤, 輕迅貌曹子建詩. 擊鞠, 見上今之打毬也. 《文淵閣四庫全書》 921책, 712상.

30) 《六臣註文選·樂府》<名都篇>, 善曰漢書曰霍去病在塞外尙穿域蹶鞠也. …向曰……擊鞠今之打毬(절강고적출판사, 1999, 497쪽)

31) 《舊唐書》 권59, 중화서국, 7책, 2334쪽.

권 95에서 “諸王들은 측문에서 황제를 알현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곧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격구와 투계, 혹은 근교에 나가 사냥을 하며 혹은 별장에서 유흥을 쫓았는데, 한해가 다하도록 끊이지 않았다. (諸王每日於側門朝見, 歸宅之後, 卽奏樂縱飲, 擊毬鬪鷄, 或近郊從禽, 或別墅追賞, 不絕於歲月矣.)”³²⁾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太平廣記》 권195 <馮燕> 조목에서 “풍연은 소식적부터 의지가 굳고 자유분방하였으며 오로지 격구와 투계를 일삼았다. 위시의 재물을 빼앗으려 다투는 자가 있었는데 풍연이 이를 듣고 공정치 못하다 하여 때려죽이고 마침내 산간으로 숨어들었다. 관가에서 추포가 긴박해지자 활주로 도망하였는데, 익주와 활주의 軍中에서 투계와 격국을 하는 젊은이들과 서로 알게 되었다. (燕少時意氣任俠, 專爲擊毬鬪雞戲. 魏市有爭財毆者, 燕聞之, 搏殺不平, 遂沈匿田間, 官捕急, 遂亡滑. 益與滑軍中少年雞毬相得.)”³³⁾라고 한 것을 보면 唐代에 투계와 격국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 놀이로 보인다. 어찌 말을 타고 하는 궁실중심의 운동인 타구를 지칭하는 것이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曹植이 언급한 擊鞠은 바로 위의 예들과 같은 종류의 놀이로 생각할 수 있다. 《舊唐書》 권12에 “[貞元 元年 2月] 계미일에 이포진, 엄진이 내조하여, 한식절에 임금은 장수들과 더불어 내전에서 擊鞠을 하였다.(癸未, 李抱眞嚴振來朝, 寒食節上與諸將擊鞠於內殿.)”³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위의 예들은 모두 한식 때 풍습대로 행해졌던 蹴鞠을 말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封演의 《封氏聞見記》 권6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볼 수 있다.

태종은 安福門에 어거하여 侍臣들에게 말하기를, “토번인들은 打毬하기를 좋아하여 근래 그것을 배우도록 하여 일찍이 한번 본 적이 있었다. 어제 昇仙樓에 胡인들이 거리에서 타구를 한다고 하여 짐이 보고 싶었다. 호인들은 내가 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같이 하자고 했다. 이에 ‘제왕이 거동을 어찌 쉽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여 짐은 이 공을 태

32) 앞의 책, 권85, 9책, 3011쪽.

33) 《太平廣記》(중화서국, 1994), 권195, 1463쪽.

34) 상계서, 2책, 348쪽.

위버리고 스스로 경계하였다.”고 하였다.(太宗常御安福門, 謂侍臣曰, 聞西蕃人好爲打毬, 比亦令習, 曾一度觀之. 昨昇仙樓有羣胡街裏打毬, 欲令朕見. 此胡疑朕愛此, 騁爲之. 以此思量, 帝王舉動, 豈宜容易, 朕已焚此毬以自誠.)³⁵⁾

이 이야기에서 封演은 분명히 폴로를 지칭하는 打毬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宋代 范祖禹의 《唐鑑》 권7과, 宋代 周必大的 《文忠集》 권160 <月日>조목, 明代 湛若水の 《格物通》 권79에서는 封氏의 이야기를 그대로 싣고 있으면서도 ‘打毬’를 ‘擊鞠’으로 모두 바꾸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타구를 擊鞠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異稱으로 간주한 소산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우리는 폴로를 지칭하는 打毬는 역시 擊鞠으로도 쓰였으며 蹴鞠과도 혼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예증에서 언급된 것처럼 전통 蹴鞠의 代稱으로서 擊鞠이란 용어에 집착하여 거슬러 올라가 타구, 즉 폴로를 중국 고유의 蹴鞠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V. 맺음말: 타구와 기타 놀이와의 관계

위에서 인용한 《宋史·禮志》에서 본 바와 같이 타구는 그 사정에 따라서 말을 타지 않고 걸거나 뛰면서 하는 타구[步打毬]가 있었고 전문 폴로용인 포니 대신에 나귀나 노새를 타고 하는[驢騾打毬]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이들의 차이는 모두 폴로용 말의 존재 여부에 따른 것으로 그 경기 방식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날 바둑과 장기가 각종 스포츠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에 비유되는 것처럼 고대에서도 이미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에서 심팔의 설명에서 인용된 《西京雜記》에 “한원제는 공을 차는 유희인 蹴鞠을 중

35) 封演, 상계서, 같은 곳.

36) 돈황유서 S.5673에는 <祭驢文>이 실려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타고 타구를 즐겼던 나귀의 죽음을 애도한 글이 보임.

아하였지만, 공을 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공을 치는 것과 유사하지만, 힘들지 않는 유희를 만들었는데 바로 彈棋라는 유희였다.”라고 하였듯이 축국과 타구는 기타의 놀이 특히 보드게임 같은 것들과 비교되거나 설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彈棋는 일종의 博戲로 《後漢書·梁冀》에서 李匡父가 《藝經》을 인용한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이 대국하며 흑백 각각 6쌍의 碁를 서로 대치하도록 배열하고 돌아가면서 통기는 놀이라고 하였다.³⁷⁾ 비록 어떻게 경기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24개의 碁와 고대 축국의 인원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用兵이나 전술과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唐代 李匡父는 《資暇集》 권中에서 蹙融이란 놀이를 설명하면서 “이 놀이는 黃帝때 蹙鞠에서 나왔으며 뜻은 군대에 있다. 특히 원만용통의 의미가 아니다. 庾亮(289~340)이 지은 《座右方》에서 말한 蹙戎이란 것은 오늘날의 蹙融이다.”³⁸⁾라고 하였다. 여기서 蹙融이란 李匡父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바둑판에 두는 오목으로 추정되며 ‘融’자는 ‘戎’자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광예는 바로 ‘戎’자 때문에 병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黃帝때 蹙鞠에서 나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宋代 黃朝英은 《靖康細素雜記》 권9에서 五碁 즉 格五를 설명하면서 이광예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아주 훌륭하지만, 黃帝시대 蹙鞠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생각해보건대 《漢書》의 <枚臯傳>에는 “蹴鞠과 刻鏤”이라고 했고, <霍去病傳>에도 “穿域躡鞠(땅을 파서 躡鞠을 하다)”라고 하였으며, 顏師古의 注에 “鞠은 가죽으로 만들고 그 속을 털로 채워, 그 것을 차면서 즐기는 오락이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蹙鞠은 蹙融이 아님이 명백하다. (其說甚佳然, 謂生於黃帝蹙鞠則又誤矣. 案漢書枚臯傳云蹙鞠刻鏤, 又霍去病

37) 《後漢書·梁冀傳》, 권64, 藝經曰, 彈碁, 兩人對局, 白黑碁各六枚, 先列碁相當, 更先彈也. 其局以石爲之.

38) 李匡父, 《資暇集》卷中: 此戲生於黃帝蹙鞠意在軍戎也. 殊非圓融之義. 庾元規著座右方所言蹙戎者, 今之蹙融也. 《文淵閣四庫全書》 850책, 156하~157상.

傳云尙穿域躡鞠,³⁹⁾ 顏師古注云, 鞠以韋爲之, 中實以毛, 蹙躡爲戲樂也. 則蹙鞠非蹙融明矣.)

또한 黃朝英은 위에서 본 《西京雜記》의 기술을 인용하고, 唐代 薛嵩이 축구를 좋아하여 劉綱이 위험한 놀이이니 하지 말라고 권유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蹙鞠이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이므로 蹙戎이 아님을 명백히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 蹙鞠을 擊鞠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저 蹙과 擊은 같은 것이다. 沈括은 擊鞠을 나무막대로 공을 치는 것으로[擊木毬子] 보았기 때문에 “蹙鞠과는 다르며 傳寫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唐書》에서는 단지 擊毬라고만 하였지 擊鞠이라 하지 않았으니, 그 뜻은 아주 분명하다. (皆謂蹙鞠爲勞動則明知非蹙戎也. 今人又以蹙鞠爲擊鞠, 蓋蹙擊一也. 沈存中乃以擊鞠爲擊木毬子, 故謂與蹙鞠異反, 以爲傳寫之誤非也. 故唐書所載但云擊毬, 不謂之鞠其義甚明.)⁴⁰⁾

이상에서 우리는 ‘蹙’자와 ‘蹴’은 발로 찬다는 의미를 가지는 같은 글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蹴’자와 ‘擊’자를 혼동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언급에서 황조영은 擊毬와 擊鞠은 다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毬’와 ‘鞠’의 차이는 《金史·禮志》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 방식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므로 논외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打毬란 唐代에 비로소 생겨난 신생의 외래 놀이로 이 놀이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의 고급 학자들은 주로 중국의 전통놀이인 蹙鞠을 들어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축국이 군대 훈련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 초기 목적 때문에 그兵法적 측면을 두고서 기타 보드게임과 같은 놀이와 비유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唐代에 비로소 나타나는 타구라는 놀이는 오늘날의 馬球로서 그 놀이가

39) 穿域: 營域을 판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축국의 골대인 鞠室을 말함.

40) 黃朝英, 상계서, 같은 곳.

유입된 곳은 티베트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외래 놀이인 타구는 기원전 4세기부터 중원에서 행해졌던 蹴鞠으로 설명되었고 혼용되었다. 그러나 이 두 놀이는 來源과 방식에서 어떠한 발전적 관계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금의 중국학자들은 이 두 놀이를 발전적 관계에 놓고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唐代의 타구는 擊鞠이란 단어로도 쓰였는데 이 격구이란 놀이 역시 고대의 축국과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그 혼란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기타 놀이들과도 用兵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유되면서 그 혼돈된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혼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분 지으려 했다. 이러한 논변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혼용된 하나의 용어를 들어서 타구 즉 폴로의 기원을 중국에 두는 고금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다.

<參考文獻>

- 柳子厚, <민간오락으로의 擊球, 농촌오락의 진흥문제>, 《대동아》 14 (1942/07).
- 나현성, <한국 蹴鞠·擊毬攷>, 《민족문화연구》 3(1969).
- 정형호, <한국 격구 (擊毬)의 역사적 전승과 변모 양상>, 《제3회 국제아세아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 《後漢書》, 중화서국, 1996.
- 《舊唐書》, 중화서국, 1995.
- 《宋史》, 중화서국, 1995.
- 《金史》, 중화서국, 1995.
- 《全唐詩》, 상해고적출판사, 1986
- 《六臣注文選》, 질강고적출판사, 1999.
- 陳元龍, 《歷代賦集》, 강소고적출판사, 1987.
- 李昉 등, 《太平廣記》, 중화서국, 1994년.

- 徐堅 등, 《初學記》, 중화서국, 1962.
- 歐陽詢 등, 《藝文類聚》, 상해고적출판사, 1999.
- 封演, 《封氏聞見記》, 《文淵閣四庫全書》 864책.
- 沈括, 《夢溪筆談》, 《文淵閣四庫全書》 862책.
- 黃朝英, 《靖康細素雜記》, 《文淵閣四庫全書》 850책.
-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 香港, 三聯書店, 1987.
-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孟元老 지, 鄧之誠注, 《東京夢華錄》, 中華書局, 1982.
- 羅香林, 《唐代文化史研究》, 臺灣商務印書館, 1963.
- 唐豪, 《東漢到六朝的馬球》, 《中國體育史參考資料》, 人民體育出版社, 1959.
- 林琳, 《馬球的起源》, 《貴州文史叢刊》, 2000/06.
- _____, 《敦煌古代的馬球運動》, 《絲綢之路》, 2001/03.
- 陰法魯, 《唐代西藏馬球戲傳入長安》, 《歷史研究》, 1959/06.
- 徐壽彰·王堯, 《唐代馬球考略》(《中央民族學院學報》, 1982/02).
- 李季芳, 《中國馬球起源新議》, 《體育文史》, 1994/05.
- 張濤, 《西域馬球文化活動史略考辨》, 《西安體育學院學報》, 22(2005/3).
- 丁玲輝, 《吐蕃時期的馬球運動與馬球轉入》, 《中國西藏》, 2003/04.
- 段小強, 陳康, 《從敦煌本“杖前飛”談唐代馬球運動》, 《敦煌研究》, 76 (2002)/06.
- 黃萍, 《馬球文化: 唐文化的遞流》, 《武漢體育學院學報》, 39(2005/11).
- 袁學軍, 《論金代和清朝馬球文化的反差》, 《山西師範大學體育學院學報》, 1996/06.
- 笹島恒輔, 《中國體育史》, 東京: 逍遙書院, 1960.

<Abstract >

The game Daqiu, existing since the Tang Dynasty, is an ancient form of modern polo. Traditionally, it was believed to have been introduced from Tibet. It was however confused with the term ancient soccer which had been played since the 4th century BC in China and this foreign game was presented as such. Despite the fact that these two games showed no evolutionary relationship in their origins and rules, sinologists of all ages tried to assign affinity between them, causing confusion in ancient texts. Daqiu was often substituted by the term Jiju (擊鞠) and the latter was used with ancient soccer(蹴鞠) without distinction, thus creating more confusion. These games were compared to other board games for strategy, adding more confusion. This study tries to verify and distinguish these confusions in ancient documents. Having examined the mixed usage of the terms,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Chinese scholars' claim, that Daqiu - that is polo - was originated in China, has no foundation.

주제어 : Daqiu, ancient soccer, Jiju(擊鞠)